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 효과 높인다

시, 대형마트·예식장과 주차장 사용 협약 체결

전주의 첫 인상을 바꿀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이 조성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주차문제 등 주민 불편을 줄이고 조성 효과를 높이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TF팀을 가동해 공사에 따른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등 명품길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극심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걷기 좋은 생태문화길로 만들겠다는 첫 마중길 조성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상생협의회의 인근 대형마트, 예식장 등과 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홈플러스 전주점은 3층~5층까지 469면의 주차장을 영업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중 인근 주민들과 상점 이용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역 인근 예식장에서도 예식이 없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0면의 주차장을 첫 마중길 주민과 주변 상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처럼 주차장이 확보됨에 따라 오는 4월 중 불법 주차차 단속을



군산 야산에서 산불

14일 오후 1시 30분경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 산림청 헬기 등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시내버스를 활용한 CCTV 단속시스템 운영을 통해 버스배이 내 불법 주차차 단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첫 마중길 조성 후 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상시 공연 등 문화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첫 마중길 인근 주민과 상인 등 24명으로 구성된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회장 노치화)도 올해 전주시 운두레 공동체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동지내

물립(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들은 올해 첫 마중길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이해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구축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첫 마중길 조성사업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광장 내 너티나무 230여주 식재와 지하매설물 설치도 완료되고 광장 바닥 포장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개막전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요공정을 5월 이전에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마중길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행방나무 현수운동 참여자와 함께하는 기념 식수행사와 참여벽(조형물) 설치 등이 완료되면 전주 첫 마중길이 시민의 힘으로 조성된 생명의 숲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시내버스 CCTV 활용 불법주차 단속

전주시가 시민불편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보다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배이를 포함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버스배이는 승객들의 편리한 버스승·하차를 위해 시내버스가 정차하기 쉽도록 보도(인도)측으로 들어간 공간으로, 버스배이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이 공간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버

스를 타기 위해 도로변으로 나와야 하는 등 각종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또, 시내버스 탑승객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도 불법주차차로 인해 차로 위에 정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모두 태울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야기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0대에 이동식 CCTV를 탑재해 교통통행량이 많은 평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6시~8시)을 단속시간으로 정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배이 주변과 모래내시장, 풍남문 주변, 전주천서로,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차차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수돗물 발원지 현장행정 나서

전주시가 65만 전주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의 발원지에 대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은 14일 진안군 용담면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단장 채봉근)을 방문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전주시 수돗물의 발원지 용담댐 상수원을 찾아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관리와 수질관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시장은 용담댐관리단 관계자로부터 용담댐 주요시설과 담수상황, 취수상황, 수질상태 등 주요현황을 청취하고, 갈수기 수질관리 방안과 기타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부시장은 이어, 용담댐 물문화관 등 용담댐 주요시설을 살펴본 후, 용담호를 관리하고 있는 순찰선에 탑승해 육안으로 용담호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쓰레기 처리방안과 조류 대응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공무원 상상동아리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전주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할 연구와 학습을 통해 시장발전은 견인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상상동아리 대표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상상동아리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상상동아리'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시장발전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로 2007년부터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

와지붕'팀 등 총 11개팀 138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과제 발표회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편한 생태송동물원 조성'을 연구과제로 발표한 기와지붕팀 등 각 동아리별로 올 한해 추진할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또, 참석 동아리회원들은 동아리별 연구과제 공유 및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주시정의 미래를 견인할 시장발전 아이디어를 창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민근 기자

“게임에 지면 뽀뽀” 선후배 강제 스킨쉽 논란

도내 A사립대 SNS에 글 올라와... 경찰, 대상 학과 조사

도내의 한 사립대학교의 선후배 대면식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강제로 키스를 시켰다 글이 해당 대학 SNS페이지에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대면식에 참석한 신입생은 SNS에 “대면식에서 남녀 선·후배가 뒤섞여 착석하도록 하고 선배들은 후배에게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며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과 함께 술자리 게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남자 선배는 게임에서 진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뽀뽀를 시켰다”며 “뽀뽀를 한 후배는 술을 더 마시기 힘들어 억지로 한 것 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이글은 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자 학회장은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페이지에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인사를 시킨 점에 대해 과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학회장은 “신입생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막지 않는 점에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입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켰다는 게임에 대해서는 해당 여학생과 이야기한 결과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해당 여학생은 이 일로 인해 남자 선배가 처벌이나 징

계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학회장의 글에 이어 피해 여학생 역시 같은 SNS페이지에 “이번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 글을 직접 쓰게 됐다”며 “학우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재가 단호하게 거절을 못한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배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학생들의 격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내린 선택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대부분 해당 학부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것 같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역시 해당 대학교의 학과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민근 기자

후배 경찰 수차례 폭행한 군산경찰서 A경감 조사

선배 경찰관이 부하 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감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후배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경찰서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감은 후배 B경위가 근무하는 파출소까지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걷어치는 등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동료 경찰관이 지방청에 민원을 제기해 알려지게 됐다.

A경감은 민원이 접수된 이후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을 소환해 추가 조사한 후 자체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만취 상태로 길가던 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40대 입건

만취 상태로 학교 운동장에서 남자 중학생에게 성추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학교 근처에 있던 남학생을 강제로 운동장으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음담패설을 내뱉은 강모씨(47,남)를 불

구속 입건했다. A군은 강제를 뿌리치고 멀리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제는 “술을 마셔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